

서울 國校 저학년 시험폐지 여과

참고서 업계 非常



서울시내 국민학교의 필기시험폐지 및 시험횟수 축소여파로 참고서 판매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.

을 2학기부터 서울시내 국민학교 1, 2년생들에 대한 교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3~6학년은 국어, 산수, 사회, 자연 등 4과목에 한해 한학기중 한번만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자 참고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. 참고서 업계는 서울시교 육청의 이같은 시험폐지 및 횟수 축소조치가 입시교육 풍토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국민학생들을 시험의

골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, 그것 없는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난감해 하고 있다. 서울시내 2백30여개 참고서 회사들은 지난 12일 시 교육청의 발표가 있는 직후 회사마다 전각부들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예상되는 평균 20~30%의 매출액 감소와 반품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못해

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. 국교생부터 고교생까지 전과목에 걸쳐 2백20여종의 참고서를 생산하고 있는 K사는 국교생 1, 2학년의 경우 판매량의 40%나 절감하고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참고서가 거의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이 회사는 을 2학기를 대비해 국교 1, 2학년용 참

매출 30% 줄듯... 全國 확대면 도산 속출 불가피

고서 40여종 80여만부를 지난 6월 제작, 이중 30%가량을 이미 시중서점에 공급했으나 대부분이 반품될 것으로 보고 있다. 또 3~6학년용 참고서는 판매량이 최소한 30% 가까이 줄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. 이 회사 嚴基濤(엄기수) 이사(52)는 『예년 같은다면 내년의 참고서를 기획해야 할 시기에 이미 만들어 놓은 참고서의 판매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』며 한숨을 지었다. 참고서 업계의 수위를 점하고 있는 D사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지난 1학기 동안 매출액이 작년보다 40%가량 줄자 지난 6월 2학기용 전과목 수련장 생산량 자체를 30%나 줄였다. 그러나 이같은 감량생산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에서만 2학기용 참고서 판매량이 1학기보다 1, 2학년의 경우 50% 이상, 3~6학년은 30%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이 회사 許鶴市(허학수) 이사(53)는 『참고서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시교육청의 조치로 이중의 타격을 받고 있다』며 『국민학교 시험폐지 및 횟수 축소가 지방교육청까지 파급될 경우 문단은 회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.』

공급된 2학기분 반품사태 우려